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A Study on Social Education, Reading Movement and Meaning of the Gyeongseong Library Which Observe From Ethnic Viewpoint

윤 금 선(Keum-Sun Yeun)*

< 목 차 >

I. 서론	1.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방향
II.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의 건립 의의	2. 경성도서관의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III.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방향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IV. 결론 및 역사적 교훈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민족적 관점에서 경성도서관의 건립 의의를 살펴보고,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방향과 독서운동의 실태를 고찰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경성도서관은 당시 조선인이 경영했던 유일한 도서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립 초기부터 국내외 조선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의 유지를 위해 저널과 관민의 힘도 적지 않았다. 그 생명은 길지 않았으나 민족 지식의 보고이자, 민족 사업으로서 식민지하 조선인에게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컸다. 둘째, 경성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공도서관일 뿐 아니라 여자교육을 위한 강습소 마련 및 부인강좌 개최, 야학 등을 실시했고, 아동을 위한 동화회 개최, 빈한한 가정의 아동에게 보통교육 실시, 기타 각종 문화 사업 등을 펼침으로써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셋째, 당시 도서관의 독서경향을 살펴보면 열람 상황은 성별로는 남자가 대부분이며 여성 독자는 소수였고, 직업별로는 학생층이 최다였으며 독서 분야로는 문학, 어학 등이 가장 많이 읽힌 편이었다.

키워드: 경성도서관, 독서운동, 조선인 경영, 사회교육, 공공도서관, 아동교육, 여성교육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Social Education, Reading Movement and Meaning of the Gyeongseong Library which observe from ethnic viewpoint. The result is same as following. First, The Gyeongseong library is the unique library which Korean people build, and they thought very seriously. So, tried to keep this library for a long time. The Gyeongseong library supplied knowledge to Korean, although the life was not long. And, as ethnic business value of the Gyeongseong library was much, too. Second, the Gyeongseong library paid attention to child education and education of women as well as it is our country's first public library. And accomplished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role. Third, readers' of the library was that man was most and the fair readers was minor part, and student was mainly (distinction of sex and profession tendency). And literature, language study etc. got to read most.

Keywords: The Gyeongseong Library, Reading Movement, Korean Administration, Social Education, Public Library, Child Education, Education of Women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임강사(east124@dongduk.ac.kr)

• 접수일: 2009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민족적 관점에서 경성도서관의 건립 의의를 살펴 보고,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방향과 독서운동 실태를 고찰하며 그 의의를 드러내는 데 있다.

경성도서관은 1920년 11월에 건립된 도서관으로서 당시 조선인 경영으로 유일했던 도서관이었다. 김윤식(金允植), 윤익선(尹益善), 윤양구(尹亮求) 등의 유지들은 취운정(翠雲亭)을 인수하여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이라는 이름의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립된 형태로서 세워진 것은 바로 이범승에 의한 경성도서관이었다. 1921년 '조선총독부'로부터 대여받은 종로 2가의 '구한국군악대'건물을 본관으로, 기존의 취운정 경성도서관을 분관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서관이 설립된 것이다. 이 도서관은 단지 일개 도서관에 불과했지만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의 도서관으로서 일종의 민족 사업이었기에 식민지하 조선인에게 민족의 상징으로서 의미하는 바가 컸다. 또한 경성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일 뿐 아니라 '조선여자청년회'를 통해 구가정의 부녀자들을 모아 신여성 교육을 펼쳤으며, 아동도서관을 마련하고 동화회 등 아동 대상의 각종 문화 사업을 벌였고,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 대신 교육을 담당하였다. 다시 말해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당대에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성도서관의 제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경성도서관의 민족적 의의와 도서관의 활동 등을 고찰함으로써 당시대 경성도서관의 의미와 역사적 교훈 등을 살펴 볼 것이다.¹⁾

II.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의 건립 의의

1920년대 경성에서는 소위 사회사업이라 하여 활동사진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건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²⁾ 특히 도서관 설립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여기던 당대에 주요 관심 사안

1) 이 연구에서는 주로 당시대 신문, 잡지 등의 저널을 텍스트로 삼았다. 경성도서관이 건립된 20년대 초기는 1919년 삼일운동 직후 일제의 문화정책의 표방으로 민족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양지 외에 다양한 신문과 다수의 잡지들이 발간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 신문은 본고의 연구 과정 중 유효한 텍스트였다. 근대 계몽기부터 언론은 공리를 목적으로, 익명의 다수의 이질적 독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해 왔다. 우리의 신문은 출발부터 상업주의보다는 공익을 앞세우고 '자주 독립과 개화'라는 시대 사명에 입각하여 자강 개화 또는 자강 독립을 위한 민족 세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신문사는 한글운동을 통한 문맹 퇴치에 앞장섰고, 각종 문화사업, 구호사업 등 신문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식을 알리고 민중을 계도하는 데 앞장섰다. 다른 대중 매체가 드물었던 당대의 상황에서, 신문은 각종 소식과 문물 소개의 장으로서, 교육의 장으로서 그 기능이 지대했던 것이다.

2) “京城府内の 社會事業: 爲先 學生을 爲하여, 활동사진과 도서관 박물관을 설립함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동아일보, 1921. 5. 1, 2면.

이었고 이의 확충이 요구되었던 시기였다.³⁾

(1) 삼십만 시민이 있는 경성(京城)은 모든 것이 발달하여 감에 따라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며 또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각 방면의 여러 운동이 일어나는 터인데 무엇보다도 교육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은 시민의 지식을 넓히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 경성 시민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이나 삼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 기관은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하다. 해마다 향학열이 증대하여 지방의 학생들이 서적을 끼고 경성으로 올라오나 수용할 학교가 부족하여 대부분 할 수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요, 또 절박한 사정이다. 경성에 이와 같이 학교가 부족하거늘 그 대신 사회적 지식이라도 연구할 곳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터인데 경성에는 완전한 도서관(圖書館)이 한 곳도 제대로 없어 학생이나 기타 전문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적을 참고할 곳이 없음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다

“三十萬市民을 爲하여 가난한 영혼에 양식을 주교자”(동아일보, 1921. 12. 6, 2면)

근대의식이 무르익던 20년대에 도서관의 의미는 학교를 대신하는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그 의미가 부각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일제 총독부에서는 문화사업으로 각 도시에 국립도서관을 보급케 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도서관사용조례’ 등을 발표(發布)하는 등 도서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때이다.⁴⁾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1920년대 말에 이르면 경성 내에는 남대문동 조선총독부 도서관(朝鮮總督府圖書館), 대관정(大關亭)⁵⁾의 경성부립도서관(京城附府圖書館), 용산(龍山)의 ‘철도도서관’,⁶⁾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이 전신이었던 종로의 경성부립도서관 분관 등이 세워져 있었다.⁷⁾

본고에서 다룰 도서관은 현재 사직동에 있는 ‘종로도서관’의 전신이자 이범승(李範昇)에 의해 건립된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으로서, 당대에 조선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도서관이었다는 점이 주시된다.⁸⁾ 그런데 실제로 이범승이 건립하기 이전인 1920년 11월에 이미 ‘경성도서관’이라는 이

3) 1920년대 표기법 그대로의 기사 원문은 이하 모두 참고문헌 하단부에 참고자료로 밝힐 것이며, 본문에서는 논문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현대 어법으로 고쳐서 제시할 것임.

4) “京城府, 圖書館使用條例發布,” 동아일보, 1922. 9. 30, 2면, “蔚山圖書館新築計劃,” 동아일보, 1922. 10. 12, 2면, “總督府, 國立圖書館을 各都市에 普及케 할 計劃으로 爲先 京城에 設立,” 동아일보, 1922. 10. 19, 2면, “國立圖書館設立計劃,” 동아일보, 1922. 6. 27, 2면, “京城府 文化事業으로 圖書館과 人事相談所, 구월부터 개시,” 동아일보, 1922. 7. 7, 2면.

5) 현재 서울 중구 소공동.

6) “京城圖書館에서 본 最近의 讀書傾向,” 조선일보, 1925. 10. 30, 석간 2면.

7) 또한 당시 경성 외곽에는 ‘인천 부립도서관’과 평양에 유일한 민간인 건립 도서관인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 등이 있어 근대적인 의미의 도서관 건립이 활발했다(윤금선,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p.132.

8) “조선사람 중심의 조선인 거주지대인 북촌(北村),” 조선일보, 1929. 11. 1, 석간 2면.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2호)

름의 도서관이 세워졌다. 즉 김윤식, 윤익선, 윤양구 등의 민간유지 등은 취운정을 인수하여 경성도서관이라는 이름의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다.⁹⁾

(2)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경성도서관은 지금까지 각종 도서를 정리 중임으로 일반 도서를 열람실에 제공하지 못하였더니 어제부터 신문, 잡지 등의 열람을 개시하였다. 어제까지 경성도서관에 도착한 외국 신문이 사십여종인데, 열람한 사람이 많아 양호한 성적을 보인다더라

“경성도서관 신문 잡지 등 종람 개시”(조선일보, 1920.12.18, 석간 3면)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성도서관은 국내의 잡지, 신문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신문 10여 종을 구비하여 개화기의 ‘신문종람소’와 같은 역할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유지들이 조선 고서적, 당서류, 일본 도서 등을 기증함으로써 장서가 늘게 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¹⁰⁾ 그러나 보다 정립된 형태로서 세워진 것은 바로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이었다.¹¹⁾



<그림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시립종로도서관에 있는 이범승(李範昇)의 동상(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G002+AKS-CI20_13756-01)

(3) 경도(京都)에서 제국대학(帝國大學)을 졸업하고 돌아온 이범승(李範昇)씨가 전력을 다하여 도서관 설립운동을 펼친 바 사업이 잘 진행되어 구월 십일부터 탑골공원 뒤에 있는 전 양악대(洋樂隊)가 있던 집을 빌려서 우선 신문 잡지 종람소를 먼저 공개하여 사십여종의 각종 신문과 백오종의 잡지를 갖추어 매일 수백여명의 관람자가 들어오며 구월 십일부터 문을 연 직후에는 열람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래에 열람자의 총 수요가 구천 명에 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본관 장서실 준비도 거의 다 되어 늦어도 오는 십오일 경에는 모든 설비를 마치고 정식으로 개관하여 일반에게 열람케 할 터이라 한다. 또한 금년 봄에 비로소 조선 사람 손으로 설립한 취운정(翠雲亭) 안에 있는 도서관도 역시 이범승 씨가 인계하여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 분실(分室)로 사용하여 한문서적(漢文書籍)을 전문으로 비치하고 본관에는 전부 신간서적으로만 비치한 것이 오천여권이요 앞으로 계속 신간서적을 살 계획이다

“三十萬市民을 爲하여 가난한 영혼에 양식을 주고자”

(동아일보, 1921. 12. 6, 2면)

9) “京城圖書館, 民間有志가 翠雲亭을 引受 圖書館을 建設.” 조선일보, 1920. 12. 13, 석간 1면.

10) “京城圖書館에 圖書寄附.” 조선일보, 1920. 12. 29, 석간 3면.

11) “藏書三萬五千部, 작년가을.” 동아일보, 1921. 2. 25, 3면.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이범승은 도서관 설립운동을 펼치고 1921년 조선총독부로부터 대
여받은 종로 2가의 '구한국군악대건물'을 본관으로, 기존의 취운정 경성도서관을 분관으로 재정립
하였다. 당시 개관 준비를 하던 본관은 신문과 잡지 등 신문실부터 개방을 시작하였고 차후 신간
도서를 비치하였다. 그리고 취운정 분관은 한문서적 전문의 도서관으로 기능케 하였다.

(4) 도서관의 내부도 최신식으로 설치하여 지금 「카트」를 정리하는 중이며 입장료는 공익사업인
까닭에 지극히 저렴하여 한사람에게 한달표는 사십전으로 정하고 개관 시간은 당분간 오후 다섯시까지
로 한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범승 씨는 말하되 지금은 실시한 처음이요 모든 설비가 아직 정돈이 되지
않아 명년부터는 야간에도 개관을 할 터이요 도서관 주최로 장래에는 시민강좌(市民講座) 같은 것도
실시하며 전문의학 상업 강연도 할 터이요 순회문고(巡廻文庫) 같은 제도도 실시할 것이란데 여하튼
경성에 이와 같은 도서관이 설립된 것은 삼십만 시민의 큰 행복이라 하겠다

“三十萬市民을 爲하여 가난한 영혼에 양식을 주고자”(동아일보, 1921. 12. 6, 2면)

예문 (4)에서 제시된 바 경성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도서의 대여와 열람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강좌, 학술강좌, 순회문고 등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1922년 1월 6일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후 정비되면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
하였으며 입장료를 받았다.¹²⁾ 당시 경성도서관은 조선인 측 유일의 도서관이자 조선인 중심의 거
주지대인 북촌(北村)에 자리하고 있어 조선인 열람자가 대부분이었다.¹³⁾

그런데 당시 경성도서관은 이범승이라는 일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 공공기관으로 기능했
던 도서관을 유지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도서 구비와 유지비의
상당 부분이 기부에 의해 채워졌다. 일례로 도서의 경우는 '조선도서주식회사' 등 출판사 뿐만 아니
라¹⁴⁾ 각계각층이 책을 기증하였다. 또한 경성도서관은 이미 건립 초기부터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미주 '국민회'에서 발간하던 <신한민보>에는 “경성에 도서관 낙성
식”(1923. 8. 23, 2면)이라는 대서특필의 제목으로 경성도서관의 신축 건물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
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이렇듯 해외 한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주민 사회에서도 '모국에
책 보내기 운동'이 펼쳐졌고, 유학생조차 관심을 가져 그들에 의해 책이 기증되기도 했다.

(5) 경성도서관은 한국 안에 오직 하나인 도서관인데(.....) 구미 각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본에도
큰 도시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 인민에게 지식을 주지만은 오직 우리 조선에는 경성도서관이 처음으

12) “京城圖書館은 일월륙일에 개관,” 동아일보, 1921. 12. 31, “京城圖書館開館時間, 自午前九時至午後九時,” 동아일
보, 1923. 4. 1, 3면.

13) “兩處에 圖書館,” 동아일보, 1922. 3. 17, 3면.

14) “三百部の 圖書를 경성도서관에 기부,” 동아일보, 1921. 3. 1, 3면.



〈그림 2〉 경성도서관에 비치된 독일서적(동아일보 1923.8.27)

로 생겨 우리 일반 동포가 다 귀히 여기며, 후원하여 우리나라에도 남의 나라와 같이 좋은 도서관이 있게 하는 것이 좋을 터인데, 재미 동포 중 뜻 있는 이가 서적을 사서 기부하면 감사하겠고 또한 교미동포 중에 본국 서적이나 혹 외국 책을 막론하고 또한 새것이나 낡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무슨 서적이든지 사서 보다가 버리는 것이 있거든 그저 밖으로 버리지 말고 우표를 붙여 경성 최운정 조선경성도서관으로 보내주면 경성도서관에서는 물론 환영하고 감사히 여길 것이요 우리 조선인의 도서관도 따라서 남의 나라 도서관 같이 확장될 터이니 이에 대하여 교미 동포들이 주의하여 주시면 좋겠소이다

“경성도서관 확장”(신한민보, 1921. 12. 22, 3면)

(6) 조선 사람 경영으로 오직 하나인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 새로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조선 유학생 육칠인은 고국 청연의 수양과 공부를 위하여 독일 서적 중에(.....) 일천이백여 원어치의 서적을 사서 보내니 여간 정성이 아니라(.....) 보내준 책은 전부 삼백여권으로(.....) 독일 서적의 정수가 거의 다 들어 있다. 이 외에 미국 〈캘리포니아〉, 〈다뉴바〉 한인교회에서는 영문(英文)으로 된 세계대전사(世界大戰史)를 기부하였고 로스앤젤레스 어떤 교회의 이목사(李牧師)는 영문으로 청년과 소년 소녀의 수양에 쓰는 서적 여덟권을 기부하였다

“科學의 中心地인 獨逸에서 書籍의 精粹가 京城圖書館에”(동아일보, 1923. 8. 27, 3면)

경성도서관은 위와 같이 도서의 기증 뿐 아니라 관민에 의해 기부금과 쌀, 각종 금품 등이 기증되기도 했다.¹⁵⁾

그런데 이러한 호응은 경성도서관이 바로 조선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경성도서관은 한국안에 오직 하나되난,” “조선 사람 경영으로 오직 하나인,”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유일의,” “조선사람의 손으로 경영하는 조선 유일의 도서관” 등의 표현은 당시 저널에서 경성도서관을 지칭할 때 반드시 쓰였던 관용 표현이었다. 이것은 이 도서관이 민족적인 상징으로서 얼마나 의미 깊었는가를 반증하며, 아래 (7)에서는 실제로 당대 선각자였던 지식인들이 그들의 이념을 서로 나누던 본산지이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7) 당시 중학생인 내가 자주 드나들던 경성도서관의 신문 잡지실에는 모든 신문·잡지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 잡지실에는 김기진이나 박영희 같은 쟁쟁한 프로 문단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송영·

15) “京城圖書館 여러가지 금품기증, 관민 유지의 성의로,” 동아일보, 1923. 12. 27, 3면.

임화·윤기정·최승일 같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신문·잡지를 보고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京城野話 -프로文學 논쟁”(조용만, 중앙일보 1991. 8. 28, 5면)

그런데 경성도서관은 건립 초기부터 아동도서관 설립이 숙원이었다. 근대 계몽기부터 아동교육은 중시되어 왔는데, 이 도서관에서도 민족의 미래를 밝힐 아동 독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¹⁶⁾ 이러한 꿈은 개관 이후 2년 후에 실현되는데, 당시 '휘문고등보통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민병휘가 경성도서관에 기부한 현금 일만원과 일반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계획에만 머물렀던 아동도서관을 마련하게 되었다.¹⁷⁾ 당시 경성도서관은 증가된 장서로 인해 공간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었다. 민영휘의 기부로 예산이 늘어나자 새로이 신관을 건축하고 기존의 도서관은 아동도서관으로 수리하게 됨으로써¹⁸⁾ 아동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8) 민병휘 씨의 일만원을 비롯하여 관민의 기부금으로 신관 건축을 하게 되었다. 신관은 건평 일백 삼십여평으로 아래층 오른쪽에 백여종의 신문 잡지를 갖추어 놓은 신문실, 왼쪽에는 열람실 90여 명을 유치할 수 있음. 칠천이백의 신간서, 이천삼백의 고서적을 진열. 구관은 아동실로 고치고 90여명의 아동을 유치할 수 있는 열람실, 휴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
“新裝의 산뜻한 京城圖書館”(동아일보, 1923. 7. 29, 3면)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관은 다수의 신문 잡지를 구비한 신문실과 신간, 구간을 비치한 열람실을 갖추게 되었고, 구관은 아동만을 유치하는 열람실과 휴게실 등을 갖춘 아동도서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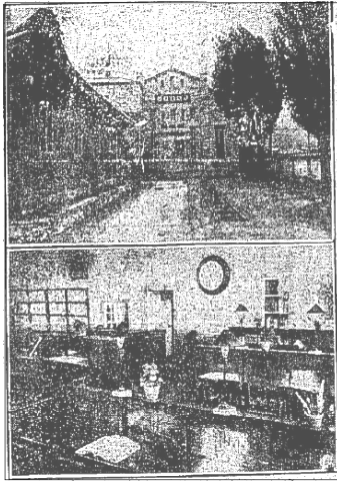
그러나 이렇듯 국내외 할 것 없이 전민족의 호응 속에서 유지되었던 경성도서관은 1924년에 이르러 경비의 부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9) 시내 인사동(人寺洞)에 있는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 조선 사람이 경영하는 유일한 도서관으로 작년 팔월 개관 이래 매일 만원의 성황을 이루어 최근에는 매일 열람자가 삼백여명 씩이나 되어 열람실이 부족하며 입장이 사절되는 인원도 이백여명 씩 된다. 결국 하루에 오백여명 씩이 도서관을 찾는 형편이다. 이는 경성 내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그 수가 훨씬 많은 것이다. 또한 일개월 평균 독자가 팔천명 이상이며 구천명이 될 때도 많다. 열람하는 책은 한달에 일만사천여권이라 하며 그 도서관에 부속된 아동도서관(兒童圖書館)에도 매일 백여명의 열람자가 있고 도서관 내에 소속된 조선여자청년

16) “兩處에 圖書館, 아해를 위하여 京城圖書館과 明治町에,” 동아일보, 1922. 3. 17, 3면.

17) “市民의 義務로 一萬圓, 閔泳徽씨가 인사동 경성도서관에 일만원의 현금을 기부하여,” 동아일보, 1922. 6. 26.

18) “明治町京城府圖書館擴張 현재보다 약삼배로,” 동아일보, 1922. 11. 17, 3면, “京城圖書館休館,” 동아일보, 1922. 12. 31, 3면.



〈그림 3〉 신축된 경성도서관의 전경과 그 내부(동아일보 1923.7.29, 3면)

회에서는 부인강좌도 더욱 충실히 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도서관은 이범승(李範昇)씨가 자기의 사재로 운영하는 터라 최근에는 이씨의 재산은 거의 소모되고 경영은 날로 곤란해지는데 며칠 전에는 교동민영휘(閔泳徽) 씨가 아래에 쓰인 권장문(勸獎文)과 함께 도서 구입비용으로 이천원을 기증하였으므로 도서관원 일동은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사회 유지의 동정을 바란다더라

“京城圖書館近況”(동아일보, 1924. 1. 27, 2면)

신축 건설된 경성도서관은 게재일 당시 1개월 열람 서적이 14,000권이던 구비된 도서관이었지만, 도서관 방문객이 매일 만원의 성황을 이루어 열람실이 부족한 상태였고, 도서관에 부속된 아동도서관에도 매일 열람자가 증가 추세였으며, 도서관 내 ‘조선여자청년회’가 주최하는 부인강좌도 활성화되는 등 성장세를 이룬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민영휘에 의해서 도서구입비가 일부 충당되기도 했으나 절대적으로 경비가 부족하였고, 은행빚을 진데다 연중 유지비인 15,000원의 부족으로 거의 폐관할 지경에 이르렀다.¹⁹⁾

근대 계몽기부터 민지개발을 우선시했던 당대인에게 우리 민족이 가장 진력해야 할 일은 바로 지식을 쌓는 것이었다. 국민이 몽매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바로 조선이 살 길이라 여긴 것이다.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 자가 소수이던 시대에 도서관이야말로 모든 시민에게 열린 지식의 통로였으며 지식의 보고로서 학교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므로 조선 유일의 경성도서관의 폐관 위기는 전조선인에게 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였다. 이에 당시 민족지라 할 수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등을 위시한 저널에서는 경성도서관을 다시 살리자는 내용의 기사를 대서특필로 보도하였다. 일례로 “京城圖書館困境, 부호여 회사하라”(동아일보, 1924. 4. 1, 2면), “今後의 京城圖書館, 閔泳徽氏가 經常費擔當”(동아일보, 1924. 4. 7, 2면), 京城圖書館廢止에 對하여(自由鍾)(동아일보, 1924. 10. 6, 2면), “경성도서관”(조선일보, 1924. 11. 19, 석간 1면) 등에서는 유지들의 기부를 촉구하는 기사들이 줄지어 게재되었다. 각 언론사의 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10) ◇ 시내 인사동에 있는 경성도서관에서는 매년 일만오천원의 경비가 없어서 최근부터 폐관 위기의 운명에 빠졌다 한다. ◇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독서를 위하여 책을 자유로이 살 돈이 있는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도시에는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몇 개씩 있는데 삼십만 시민이 사는 경성에서

19) “京城圖書館困境, 년액 일만오천원이 업서 래월에는 폐관하게 될듯.” 동아일보, 1924. 3. 31, 1면.



<그림 4> “京城圖書館廢止에 對하야”(自由鍾)(동아일보, 1924. 10. 6, 3면)

일개 도서관을 유지하지 못한다 함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나(.....) ◇ 우리는 지금 불에 타는 동포를 구할 길을 연구하는 청년에게 연구 재료를 주는 도서관이 역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더욱 비통을 느낀다 ◇ 조선인이 아무리 빈약하여도 이것을 불 속에 넣고야 말 것인가! 부호의 기부를 바란다

“京城圖書館困境, 부호여 회사하라”(동아일보, 1924. 4. 1, 2면)

(11) ◇ 세계(世界)의 사조(思潮)는 나날이 우리로 하여금 몽매(夢靨)을 타파(打破)하도록 재촉한다 이는 곧 신지식(新知識)의 파동(波動)이니 과연 지식(知識)은 위력(偉力)이요 권위(權威)다 세계대전(世界大戰)에 너무나 뒤진 우리로서는 어찌 일각(一刻)이라도 허송세월할 수 있으랴 어서어서 빨리 배우고 연구(研究)하여야 될 것이다 ◇ 조선인(朝鮮人)의 경영(經營)으로 경성 청년 남녀의 유일한 독서관(讀書機關)이던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이 이제 경제곤란으로 유지(維持)할 수 없어 폐관(廢關)이 되었다 한다. 아

슬프다 어찌 이다지도 우리 생활은 모조리 쓸쓸하고 비참한 것, 우리 사업은 무엇 하나 완전한 것이 없다. 이 한 개의 도서관의 운명(運命)까지 유지를 못하고 파멸(破滅)을 하니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표징(表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부호여, 지사여 도서관을 살리기를 바란다

“京城圖書館廢止에 對하야(自由鍾)”(동아일보, 1924. 10. 6, 3면)

심지어 경성도서관 경영자인 이범승까지도 “최후의 一訴”(조선일보, 1924. 11. 18, 석간 2면)라는 글을 통하여 “운명이 경각에 있는 경성도서관, 구제의 한 길은 현금 5만원 문제”라며 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경성부(京城府)에서는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²⁰⁾ 뜻 있는 시민들 몇몇의 기부금이 경성도서관으로 보내졌다. 당시 한 기사문에서 지방의 촌부가 참여한 의연금 기부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 경성도서관은 일개 도서관에 불과했지만 우리 민족에게 상징적인 존재였음을 다시금 인식케 한다.

(12) 자기 재산이 천원 어치 밖에 안 되는데 상봉 하술하고 일곱 식구가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변치 않아 의연금이 제 힘에 부치기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상점을 경영하여 겨우 지내는 중 백만 대중이 굶어 죽게된다는 말을 듣고 제 처지로 상점에 팔린 물건 값을 있는대로 털어

20) “京城圖書館에 補助,” 조선일보, 1924. 5. 30, 석간 2면.



〈그림 5〉 “최후의 一訴”(조선일보, 1924. 11. 18, 석간 2면)

마산(馬山) 구제회에 보냈사운데 그런지 이틀 만에 또 이런 소식을 들으니 자연 눈물이 앞을 가리나이다(.....) 될 수 있으면 제 재산을 바치고 싶으나 그럴 수는 없사오니 재단법인이 되기까지 연 백원을 두 번에 나누어 바치겠나이다. 선생님 여러가지 어려움을 배제하고 곧 세계 나가면 뜻있는 사람이 반듯이 이를 것이요 죽음 속에서 살기를 도모할 것이외다. 저의 짧은 붓이 어찌 기슭에 가득한 만단회포를 다 쓰겠나이가

“눈물로 잉킨 1백원의 의연금”(조선일보, 1924. 11. 24, 조간 2면)

일곱 식구를 거느린 한 가정이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자신의 일부 재산을 경성도서관으로 보냈다는 내용인데, (12)에서는 일반 시민이 도서관의 위기 경각을 얼마나 안타까와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민의 호응은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1924년 10월 1일에 경성도서관은 폐관하기에 이르렀다.²¹⁾

이에 탄식의 소리도 높았는데, 당시 보도 기사 “京城圖書館廢止, 경비관제로 할수업시 폐관”(동아일보 1924. 10. 1)에서는 폐관 문제에 대해서 “조선인의 유일한 도서관이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조선 사람의 사업이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는 사회적인 상황을 들며 탄식했고, “圖書館의 維持困難”(동아일보, 1924. 10. 2, 1면)에서는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미국 등의 서구 도서관의 성공적인 경영과 비교하면서, 도서관 같이 중요한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은 까닭에 “우리朝鮮사람 經營으로 唯一하다할京城圖書館이지금그存立이危險하게 될것”이라며 “智識을 民衆에게 向하야解放하는機關이 그機能을一時라도 停止함은우리의不幸”이라고 한탄했다. 도서관을 살려야 한다는 촉구의 기사도 다수 게재되었는데, 일례로 “京城圖書館의 運命, 지식의 보고를 살리자”(동아일보, 1924. 11. 18, 2면), “無影의 寶庫 京城圖書館, 다시 살릴 사람이 없는가”(동아일보, 1924. 10. 2, 2면) 등에서는 서구 강국이나 일본 등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은 결코 무기 그것이 아니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며 무형의 보고(寶庫)인 경성도서관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京城圖書館의 閉門”(조선일보, 1924. 10. 2, 석간 1면)에서도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의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경성도서관의 유지를 위해 독지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서관 살리기를 촉구한 저널의 움직임이 사회적인 무드로 확산되자 경성부(京城府)에서는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을 유지케 하였고,²²⁾ 경성도서관은 1926년 2월부터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다.

21) “城圖書館 閉館, 今日부터,” 조선일보, 1924. 10. 1, 석간 3면.

개관 이후 학생들 및 일반 독서자들이 대거 몰렸다.²³⁾ 그러나 그 생명이 길지 못한 채 1년 정도 유지되었으나 중국에는 조선인 경영이 아닌 일본인 소관인 경성부 부립도서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3) 인사동에 있는 경성도서관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약 사만원의 금액으로 경성부가 사서 경영하게 되었다. 지금 명치정(明治町)에 있는 부립도서관을 장곡천정(長谷川町) 대관정(大關亭)으로 이사하는데 대관정은 삼정합명회사(三井合名會社)가 대정 십이년에 십이만육천원으로 매수하였으나 현재가로는 이십만원이나 됨으로 경성부원은 삼정 경성시 점장과 누차 교섭한 결과 삼정 측에서 경성부의 사회사업에 찬성하는 뜻으로 원가대로 팔 것으로 보여 지난 이십일에 완전히 교섭이 다 되었다는데 그 면적은 약 삼천평으로 길가에 있는 삼백오십평은 부민에게 팔고 그 나머지는 도서관을 건축 하리라더라

“京城圖書館府營決定 府立은 大觀亭에 移轉”(동아일보, 1926. 2. 23, 5면)

경성도서관이 경성부 소관으로 옮겨가게 되자, “朝鮮唯一이든 智識庫 五年積功이 이제 水泡, 조선은 이것하나 가질 팔자가 못되는가”²⁴⁾라고 탄식하며 조선인 중에 경영자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쇄도하였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研究會)’라는 학생 단체에서는 일반 사회의 여론을 일으키고자 연설회를 개최하고 전단지 뿌리는 등 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앞장섰다.

(14) 문제 만든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 필경 그 관주 이범승(李範昇)씨가 경영하기 어렵게 되어 경성부(京城府)에서 경영하게 되었다 함은 누누이 보도한 바이거니와 이제 그와 같은 비보를 접한 시내 관철동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지난달 이십칠일에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도서관 문제를 토의하게 되었는데 과학을 연구함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관인 바 그것을 우리 손으로 경영하다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일 뿐 아니라 위치 변경설까지 전하는 바 만일 그와 같이 되면 과학연구회 뿐 아니라 일반 우리 독서가의 큰 손실인 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라 하여 1. 삼월 이일에 연설회(演說會)를 개최하여 크게 여론을 환기하자 2. 「빠라」를 전 도시에 산포(散布)하여 크게 시민의 각성을 환기하자 3. 사회유지(社會有志)를 방문하여 크게 동정을 환기하자 는 등의 결의

“민족적 감정의 이유. 결의문 산포 금지”(조선일보 1926. 3. 2, 석간 2면)

(14)에서 나타난 바처럼,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서관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그들은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며,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경

22) “京城圖書館復活, 경성부에서 경비를 보조해야.” 동아일보, 1925년. 1. 30, 2면, “京城圖書館 繼續 補助,” 동아일보, 1925. 3. 19, 2면.

23) “京城圖書館 한동안 폐관후 今日 다시 開館,” 동아일보, 1925. 2. 1, 2면.

24) “朝鮮人을 떠나는 京城圖書館,” 동아일보, 1926. 3. 6, 2면.

영하던 경성도서관을 잃는 것은 큰 수치이자, 과학연구회 뿐 아니라 일반 조선 독서가의 큰 손실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연설회를 개최하고, 전단지(傳單)를 전 시(市)마다 배포하며, 사회 유지들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환기하고자 결의했다. 그러나 일제 당국에서는 그러한 운동은 민족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연설회와 전단지 산포(散布)를 금지함으로써 계획이 무산되었다.²⁵⁾ 뿐만 아니라 회원 정달헌(鄭達憲), 권오상(權五尙), 조두원(趙斗元) 등은 비공식적으로 사회 각 공공단체를 방문하여 도서관 이관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²⁶⁾ 이 단체 뿐 아니라 '사단체합동위원회(四團體合同委員會)'에서도 집행위원회를 열고 그 진상을 규명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26년 4월에 경성부 소관으로 완전히 옮겨져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京城府立圖書館 鍾路分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²⁸⁾ 1927년 5월에는 장곡천정(長谷川町) 대관정(大觀亭)으로 이관하게 되었다.²⁹⁾ 결국 당시 최초이며 유일했던 조선인의 도서관을 잃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성도서관은 당시 조선인이 경영했던 유일의 도서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지닌 도서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은 건립 초기부터 국내외 조선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의 경영에 장서 구비부터 유지까지 국민의 기부가 잦았고, 이의 유지를 위한 저널과 관민의 힘도 적지 않았다. 단지 일개 도서관에 불과했지만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의 도서관이었고 민족의 지식의 보고이자, 민족사업이기도 했기에 식민지하 조선인에게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Ⅲ.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방향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1.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방향

경성도서관 건립 당시 “研究的 精神의 必要, 京城圖書館에 閔泳徽氏가 金一萬圓을 寄附한 것을 기회로”(동아일보, 1922. 6. 27, 1면), “圖書館의 學術的地位, 京城圖書館落成에 臨하여”(동아일보, 1923. 7. 31, 1면) 등을 보면 도서관은 연구 정신이 필요한 곳이며, 일종의 대학교와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대 경성도서관은 단순히 독서와 상관된

25) “민족적 감정의 이유, 결의문 선포 금지,” 조선일보 1926. 3. 2, 석간 2면.

26) “移營問題陳情, 경성도서관문제로,” 동아일보, 1926. 3. 3, 2면.

27) “경성도서관 진상조사, 합동위원회 결의,” 조선일보, 1926. 3. 10, 석간 2면.

28) “京城府 經營으로 넘어간 京城圖書館,” 동아일보, 1926. 4. 1, 조간 2면, “京城府 經營으로 넘어간 京城圖書館의 名稱이 京城府立圖書館 鍾路分館으로 바뀌다,” 조선일보, 1926. 4. 25, 석간 2면.

29) “京城圖書館移轉, 長谷川町 大觀亭으로,” 동아일보, 1927. 5. 18, 2면.

장소로서 역할한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사회 제반 문제를 강연하는 강습소, 여자교육을 위한 강습소 및 부인강좌, 아동을 위한 동화회, 기타 각종 문화사업 등을 실시했다.

특히 여성교육에 있어서는 '조선여자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가 주축을 이루었다.

(15) 조선여자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는 작년 봄부터 조직된 후로 회장 신알배트 여사와 기타 열심히 진력하는 직원들이 물질적 곤란 속에서 교육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몇 달 전부터 관수동(觀水洞)에 일시 거처하던 장소를 또 내놓게 되어 거처할 회관이 없는 형편이었던 바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이범승(李範昇)씨는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아동실(兒童室)의 한방을 빌려주어 동청년회의 사무실로 쓰게 하는 동시에 종래에 그 청년회에서 가르치는 교육부(教育部) 학생들도 오후부터 아동실에서 학과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朝鮮女子青年會는 京城圖書館에 移轉, 계속하든 강습소 이외에도 부인강좌를 새로 실시한다”

(동아일보, 1923. 10. 1, 3면)

'조선여자청년회'는 당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가정의 부녀자를 교육하던 단체로서 재정적인 곤란으로 일정한 교육 장소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경성부 내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여자의 '보통교육'³⁰⁾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일반 여성을 무료로 입장케 하여 영어반(英語班)과 보통과로 나누어 교수(教授)하였고, 또한 “생활과 접촉하는 기계과학(機械科學),” 자녀교육, 기타 일반 상식 등에 대한 교육도 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열기도 했다. 경성도서관 소속 이전에는 장소가 불안정한 관계로 입학생을 제한하였으나 경성도서관 내에 장소를 마련한 이후부터는 모집 인원도 확대하여 여자교육에 더욱 정진했다.³¹⁾

(16) 조선여자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에서 부인강좌(夫人講座)를 토요일마다 개최한다 함은 여러 번 보도한 바 금일에도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안에서 오후 일곱시 반부터 의사(醫師) 김용채(金溶琛)씨를 정하여 지부쓰(장감)에 관한 주제로써 상식이 없는 부녀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도 유지 제씨의 유익한 강연이 있을 것이라 한다. 일반 부녀자는 노소를 물론하고 이러한 유익한 강연을 많이 와서 들어주기를 바란다더라

“부인 강좌. 금야 경성도서관에서”(조선일보, 1923. 10. 27, 석간 3면)

30) “보통교육(普通教育)은 보통의 知識과 才能을 가르치고, 특히 國民된 성격을 함양하며, 國語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박봉배, 한국어교육전사(상)(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 pp.265-266.

31) “朝鮮女子青年會는 京城圖書館에 移轉, 계속하든 강습소 이외에도 부인강좌를 새로 실시한다.” 동아일보, 1923. 10. 1, 3면, “조선여자 청년회는 경성도서관에서 부인강좌를 개최함,” 1923. 10. 10, 3면, “여성사연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8, p.71.

(17) 시내 인사동 경성도서관 안에 있는 조선여자청년회에서는 금일 오후 일곱시 <부인강좌>를 열고 <오두환>씨가 <사회사업과 가정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는 데 오늘 밤에는 특별히 동경대 진재의 활동사진을 상영할 터이라 한다

“경성도서관 內의 조선여자청년회에서 금일 부인강좌를 열고”(조선일보, 1923. 12. 15, 석간 3면)

(16)과 (17)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반 상식의 강연, 사회와 가정 문제를 다룬 부인강좌, 사회 문제 관련 영화 상연 등의 활동상들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 (18)의 예문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성에게 보통교육을 가르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네!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열성을 가지시고 공부만 하신다면 가르치는 곳이 있겠지요 지금 서울에는 당신네 같이 때를 잃은 여자를 위하여 강습소도 몇 곳 있고 또한 탑골공원 옆에 있는 경성도서관 안에 여자청년회에서 야학으로 가정부인과 학년 연령이 지난 여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통과도 있고 중등과도 있으니 자세히 문의하여 보시오

“말동무, 가르쳐 주시오”(시대일보, 1924. 12. 7, 2면)

인용문은 <말동무>라는 독자 투고란에 게재된 글로서 한 여성이 집안 사정으로 나이 들어 뒤늦게 신학문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글이다. 이를 보면 경성도서관이 가정부인과 연령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야학을 운영하며 보통교육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아동도서관을 건립한 데서도 나타나지만 아동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동도서관 개관 이후 아동에게 책을 열람케 하고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 준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동화회, 강연회,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상을 보였다. 특히 아동교육에는 ‘소년구락부(現代少年俱樂部)’가 주축이 되었는데, 이 단체는 경성도서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아동 대상의 각종 문화 행사를 펼쳤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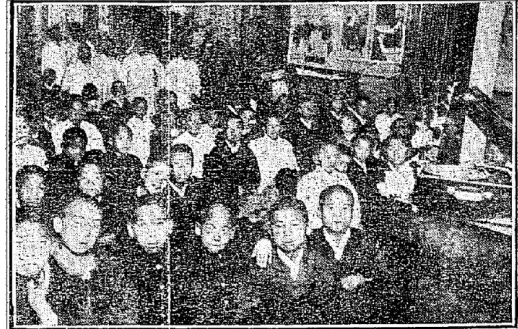
특히 동화회는 아동들에게 인기였고 성황리에 열렸다. 이 동화회는 소년구락부가 주체가 되어 소파 방정환, 정홍교 외 여러 강사들을 초빙하여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개최하였다.³³⁾

32) “現代少年俱樂部 開館. 京城圖書館內에 사무소를 설치 서적열람 및 文化行事가질 터.” 조선일보, 1925. 4. 2, 석간 2면.

33) “종로 도서관 반세기의 종장 끝내 문닫는 「한국최초」.” 중앙일보, 1967. 7. 17, 3면.



〈그림 6〉 “五月會주최 현상동요동화대회에서 상을 탄 어린이들”(조선일보, 1926. 3. 29, 조간 3면)



〈그림 7〉 “경성도서관에서 열린 동화회의 재미있는 모임(寫)” (동아일보, 1923. 11. 20, 3면)

(19) 현대소년구락부(現代少年俱樂部)에서는 구일 오전 여덟시 반부터 시내 인사동(仁寺洞)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 일요동화회(日曜童話會)를 개최할 터이러는데 입장은 소년 소녀에게 한한다 하며 연사는 다음과 같다고 李伯均 外 三人

“日曜童話會, 現代少年俱樂部主催로 去九日 京城圖書館에서”(조선일보, 1925. 8. 10, 조간 2면)

(20) 탑골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 어린이들의 품성도야를 돕기 위해 금 십팔일 하오칠시부터 동도서관아동실에서 동화회(童話會)를 개최한다는데 이날은 방정환(方定煥) 씨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터이라 하며 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더라

“京城圖書館의 童話會, 보통학교아동에 한하여 입장”(동아일보, 1923. 11. 18, 3면)

언급된 바와 같이 방정환 등이 주장사인 동화회는 어린이들의 품성을 함양하고자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³⁴⁾ 무료로 개최된 동화회는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는데, 보통학교(소학교) 대상으로 제한하여 입장을 허락했다.³⁵⁾

우리나라에서 동화회가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반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형 전반이 ‘어린이’ 출현과 더불어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당시의 몇몇 상징적 사건들, 예컨대 ‘어린이날’의 제정, 각종 소년 단체의 조직과 소년 운동의 전개, 교육열의 급속한 팽창, 아동용 출판물의 급증, 아동문화의 제도화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로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동화회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³⁶⁾ 당시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외 여러 신문사에서는 동화회를 적극 지

34) “童話會는 今夕 京城圖書館에서 方定煥氏를 청하여 소학생의 품성을 함양코자,” 조선일보, 1923. 11. 18, 석간 3면. “今夜도 童話會, 京城도서관주최로 방정환씨를 청하여,” 조선일보, 1923. 11. 25, 석간 3면.

35) “경성도서관에서 方定煥氏의 동화강화회,” 동아일보, 1923. 11. 2, 3면.

36) 조은숙, “동화회(童話會) 연구-공동체적 독서에서 독서의 공동체로,” 민족문화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제45권(2006), pp.226-227.

원하였고 동화회의 개최, 동화대회 등의 소식을 알리는 다수의 기사가 2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³⁷⁾ 이를 통해 보면 당시 동화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움직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문예(聽文藝)적 독서³⁸⁾에 해당되는 동화회는 경성도서관에서도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이 모임에서는 특별히 '보통학교 아동'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은 경성도서관의 공간이 협소했던 탓이기도 했으나 당시 일반 사회, 종교 단체 주최의 동화회가 포괄적인 문화 계몽의 장으로 역할한 데 반해, 도서관 주최의 동화회는 취학 아동의 교육이라는 점에 한정하여 회를 운영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⁹⁾

소년구락부는 동화회 뿐 아니라 아동 대상의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을 불러 모았다.

(21) 시내 종로 이정목에 있는 현대소년구락부(現代少年俱樂部)에서는 오는 이십칠일 오후 여섯 시반부터 『레코-드』 대회를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아동실에서 개최한다는 데 입장은 소년소녀에 한하되 장내를 정리키 위하여 입장료 오전씩을 받는다 하며 『레코-드』 연주 이외에 소년소녀의 재미있는 합창과 무용이 있으리라더라

“현대소년구락부 레코드대회 27일 오후에 경성도서관에서”(조선일보, 1925. 12. 27, 석간 2면)

(21)에 제시된 바 '현대소년구락부'는 '레코드'의 연주 뿐 아니라 합창과 무용 등을 하기도 했고, 이 외에도 때때로 아동교육에 관한 '유성기'를 틀어 새로운 기계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롭게 지식을 쌓게⁴⁰⁾ 하고 각종 강연을 개최하는 등⁴¹⁾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또한 경성도서관 관리부에서도 일본에서 각종 과학교재, 그 밖의 시청각 교육 기구를 마련하여 아동교육에 힘썼다. 또한 아동도서관에서는 집안이 빈한하여 학교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통학과'를 교수(教授)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경성도서관의 활동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공도서관일 뿐 아니라 경성도서관

37) “天道教北青少年童話會. 去十四日 北青天道教宗理院에서,” 조선일보, 1923. 10. 22, 석간 4면, “仁川가나리아會童話. 去二十九日 李元珪氏를 초빙,” 조선일보, 1926. 11. 3, 석간 2면, “童話會 開催. 일본동화계의 신인 小池長洲 來六日 元山普校에서,” 조선일보, 1927. 8. 5, 석간 2면, 仁川懿法青年會童話會,” 동아일보, 1922. 4. 13, “햇발(童話雜誌) 創刊號. 開城 童話會發行,” 동아일보, 1923. 12. 2, 3면, “童話大會. 서울 少年主權로,” 동아일보, 1927.3. 22, 2면, “별담會 定期童話會,” 동아일보, 1927. 7. 8, 3면, “懸賞童話大會 安新普校堂서,” 동아일보, 1932. 4. 30, 3면, “조선소년군 동화회 개최,” 조선중앙일보, 1933. 10. 10, 4면, “정주천도소작 동화회,” 중앙일보, 1931. 12. 18, 3면, “소년소녀 동요동화회,” 시대일보, 1925. 7. 25, 3면 등 다수.

38) ‘청문예(聽文藝)’는 듣는 것으로 문예를 향수하는 독자를 지칭하기 위해 천정환이 사용한 말이다.(천정환, 근대의 책읽기(서울 : 푸른 역사, 2003), p.84.

39) 조은숙(2006), 앞 글, p.236.

40) “京城圖書館은 來九月一日부터 附屬兒童圖書館을 開館,” 조선일보, 1923. 8. 31, 석간 3면, “레코드 대회, 현대소년구락부 주최,” 시대일보, 1925. 12. 27, 2면.

41) “現代少年俱樂部童話會, 十七日 경성도서관아동실에서 演士는 李定鎬 張茂鉞,” 조선일보, 1926. 1. 18, 석간 2면.

내에 '조선여자청년회'가 소속되어 사회 제반 문제를 강연, 여자교육을 위한 강습소 마련 및 부인강좌 개최, 야학 등을 실시했고, '현대소년구락부' 등은 아동을 위한 동화회 개최, 빈한한 가정의 아동에게 보통교육 실시, 기타 각종 문화사업 등을 펼침으로써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기능하였음을 확인케 한다.⁴²⁾

2. 경성도서관의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경성도서관은 조선인이 주로 거주하는 북촌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열람자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22) 경성부(京城府)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경비를 마련하여 사회사업으로 간단한 도서관(圖書館)을 설립할 것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바거니와 경성의 시가는 남면으로는 일본인이 많이 살고 북면으로는 조선 사람이 많이 있어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에도 도서를 열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조선인 편의 도서관은 이범승(李範昇)씨가 경영하는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안에 특별히 아동도서관(兒童圖書館)을 설치케 하여 조선 아이들의 교외교육(校外教育)의 찬조가 되게 하고

“兩處에 圖書館, 이해를 위하여 京城圖書館과 明治町에”(동아일보, 1922. 3. 17, 3면)

그런데 도서관의 대상별 열람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열람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공부할 개인 공간을 갖기 힘들었던 당대 상황에서 도서관이 바로 공부방이 되는 도서관의 열람실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특히 시험 기간에 열람자가 대거 모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3) 이학기 시험! 학생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각 학교의 이학기 시험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보기 좋으나 보기 싫으나 시험은 보아야 하겠고 잘 되나 못 되나 준비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최근의 학생계는 무척 긴장되었으니(.....) 서점에 드나드는 학생의 수효는 자세한 통계가 없으므로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낙원동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 밀리는 사람만 하여도 그저 계부터는 바짝 늘어가기 시작하여 저녁 먹기가 무섭게 일곱시도 못 되어 이미 정원이 넘어 신문 잡지실 에까지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글』을 탐하여 모여드는 이 모든 사람은 거의 전부가 희망이 넘치는 얼굴 에도 불안한 걱정의 빛을 띤 학생들이다 며칠 전부터 오일까지의 통계만 하여도 총 열람 인원 일백육 십이명은 순전한 학생이었는데(.....) 이학기 시험을 목전에 바라보는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애를 쓰는 까닭이라 한다

“臨迫한 試驗期와 學生의 讀書激增, 경성도서관에 나타난 근일 독서계”(동아일보, 1923. 12. 10, 3면)

42) “종로 도서관 반세기의 종장 끝내 문닫는 「한국최초」,” 중앙일보, 1967. 7. 17, 3면.

(24) 한동안 폐관 중이던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 다시 서광이 보여 근근히 개관될 터이랴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거나와 학생들의 독서열이 나날이 더하여 가는 시기가 이때일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입학시험 준비시기인 이때에 학생들에게 하루라도 속히 편리를 도모하여 주기 위하여 우선 학생들의 열람에 한하여 금일부터 개관하게 되었다 하며 경성부에서도 이 도서관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중임으로 곧 원만한 유지책이 정하여질 것이라 하며 따라서 일반 관람자도 나중에 관람하게 될 것이라더라

“京城圖書館 한동안 폐관후 今日 다시 開館, 학생에게 한해”(동아일보, 1925. 2. 1, 2면)

도서관의 열람실화 경향은 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지적 될 수 있는데, 근대 초기부터 도서관을 찾는 열람자가 책을 열람하기 위한 목적보다 공부하기 위한 공간으로 방문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케 된다.

“最近 京城圖書館의 讀書傾向. 法律과 政治社會의 열람이 증가”(조선일보, 1923. 12. 25 석간 3면)를 보면 1923년 12월 당시의 독서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독서주간⁴³⁾이기도 했는데, 대상별 열람자 수와 서적별 독서경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5) 경성도서관의 독서 성적을 들을 것 같으면 제일 많은 수가 학생이요 그 다음은 보통학교에 다니는 듯한 어린이가 매월 평균 일천사백여명에 달한다 하며 그 외에 사회 청년으로는 소설과 연극 각본을 제일 많이 읽고 그 다음에는 문학과 사상 방면에 대한 서적을 보는 이가 많다 하며 그 외에는 외국어학의 독서열이 전년보다는 매우 양호하다는데 이전에 독일에서 삼백여권이 도착하였는데 의학생과 중국 혹은 일본 유학생이 들어오면 대개 그 책을 매우 재밌게 읽는다 한다. 남자는 매월 평균 육천사백여명에 달하나 여자는 한달에 제일 많은 때가 이십사명이요 적은 때는 칠팔명에 불과한 데 그 역시 책을 읽으러 오는 것도 아니요 도서관이라는 것을 구경하려고 오는 이가 많아 부인 서적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부인석도 남자가 점령하게 되었다 하더라

“最近 京城圖書館의 讀書傾向. 法律과 政治社會의 열람이 증가”(조선일보, 1923. 12. 25 석간 3면)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별 열람자 수를 살펴보면 학생이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매월 평균 6,400여명, 여자는 한달에 많으면 24명, 적으면 7-8명 정도에 불과

43) 당시 각 도서관에서는 매년 가을에 ‘독서주간(讀書週間)’을 정하여 도서관 선전 및 양서 소개를 주목적으로 포스터를 통하여 홍보도 하고, 무료 공개도 하면서 독서 운동을 추진하였다. 경성도서관은 이 시기에 ‘동화회(童話會)’와 ‘부인강좌(婦人講座)’를 함께 열기도 했다. “ 시내에잇는각도서관(圖書館)에서는 오는십일일부터 년례에의하여 도서관주간(圖書館週間)을시행하는일변각주노자(主腦者)가모허협의한후 전조선덕으로 도서관관맹을 계획하여조선 문화(文化)의 축진을 기할터이러는바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십일월삼일하루를 일반에게무료공개하는일변 동화회(童話會)와부인강좌(婦人講座)도열터이라하며충독부도서관에서는 일이랑일을 동안 부립(府立)도서관에서는 사오륙삼일간 통산도서관에서는 일일부터 일주일동안 각기무료로 공개할모양인데이는도서관을선던하는동시에 양서소개(良書紹介)를목덕함이라더라”(“最近 京城圖書館의 讀書傾向,” 조선일보, 1925. 10. 30, 석간 3면).

하며 그나마 책을 읽으러 오기보다 도서관을 구경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하니 남자 열람자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적 종류별로 보면 소설과 희곡 등의 문학류와 사상서가 가장 많이 읽혔고, 외국 어학과 독일에 서 온 책들이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특히 독일에서 들어 온 책들은 앞서 살펴 본 “科學의 中心地인 獨逸에서 書籍의 精粹가 京城圖書館에”(동아일보, 1923. 8. 27)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경성도서관의 개관 즈음 독일 유학생에 의해서 기증된 책들이다. 보내준 책은 전부 300여 권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서적들이었다.

(26) 서적목록 <막스> 전집, <칸트> 전집, <마이얼> 백과사전, <괴테> 전집, <러셀> 전집, 독일어대사전 <쇼펜하우어> 전집, 세계역사 박물관사전,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인넬만> 전집, <피히테> 전집, <율리우스> 전집, <라카> 세계역사, <플라톤> 전집, <하우프트만> 전집, <타고르> 전집, 도서관실감, <불교><썬덜> 자전, 세계도서 <랑썬이드> 자전

“科學의 中心地인 獨逸에서 書籍의 精粹가 京城圖書館에”(동아일보, 1923. 8. 27, 3면)

독일 철학서, 전집류 등은 당시 독일 서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이었다. 해외 동포로부터 기증된 책은 이 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다뉴바 등의 한인교회에서 기부한 영문(英文) 세계대전사(世界大戰史),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보낸 영문 수양서(修養書) 등도 경성도서관 서고에 비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게재된 기사 중 일본인 중심의 ‘경성부립도서관’의 독서경향이 게재되고 있는데, 조선인 중심의 경성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다.

(27) 教育家가 多數 府立圖書館成績 학생이 제일이오 그 다음은 教育가이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인 중심의 경성부립도서관의 성적은 매월 평균 남자가 이천명 여자가 백여명으로 그 중에는 학생도 많거니와 사회인으로 教育자가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들이 보는 책은 <이학> <수학> <의학> <정치학> <경제학>이 제일 많다 하며 여자들은 <미술> <음악>을 많이 본다. 부립도서관에는 학생보다 오히려 사회인이 더 많다더라

“圖書館과 書店에 表現되는 朝鮮文化의 程度”(조선일보, 1923. 12. 25, 석간 3면)

조선인 중심의 ‘경성도서관’과 일본인 중심의 ‘경성부립도서관’ 열람자 수 중 학생이 최다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부립도서관의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상위에 속하며, 또한 도서관 열람자 수가 남녀 성별 비율 중 남자가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여성 독서자 수가 경성도서관에 비하면 훨씬 상위를 맴돌고 있으며 또 여성들은 주로 사회인인 경

우가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독서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학 위주인 경성도서관 독서경향과 달리 부립도서관은 이학(理學), 수학, 의학, 정치학, 경제학 등이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미술이나 음악 등이 여성들에게 읽히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한달 전체 열람자 수는 경성도서관이 부립도서관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하여 공부할 공간이나 다양한 서적을 대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⁴⁴⁾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臨迫한 試驗期와 學生의 讀書激增, 경성도서관에 나타난 근일 독서계”(동아일보, 1923. 12. 10, 2면)를 통해 1923년 12월 한달 간의 직업별 열람 경향을 보면,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전체 열람자 수가 6,369명 중에서 학생이 4,814명, 상공업자가 189명으로 순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수는 직공 3명으로 나타났다. 12월 중 하루 열람자 수를 보면 많은 경우는 305명, 적은 경우에는 149명 정도였고, 열람한 서적 수는 12,275권으로 종류별로 보면 문학서가 4,213권, 수리(數理)가 2,430권, 법률·경제가 2,242권 등의 순으로 많이 읽혔고 가장 적은 수는 공학 94권이었으며 사회주의 사상서는 거의 읽히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도서관이 이미 개관한 때로서 아동 열람자 수도 1개월 동안 1,464명의 아동이 도서관을 찾았고 하루에 가장 많을 때는 209명, 적은 때는 33명 정도였다.

1924년 1월 통계 기사인 “京城圖書館近況, 일개월 열람서적이 일만 사천권, 경비부족으로 매우 곤란할때에”(동아일보, 1924. 1. 27, 2면)를 보면 매일 열람자가 300여명, 많을 때는 500여명이나 되어 매일 평균 9,000여명이 넘는 상황에 다다랐다. 따라서 열람실이 절대 부족하여 수용 공간 부족으로 열람이 사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열람하는 책은 한달에 14,000여권이었고⁴⁵⁾ 부속된 아동도서관(兒童圖書館)에도 매일 100명의 열람자가 도서관을 찾았다. 1924년 10월 재정난으로 잠시 폐관할 즈음 경성도서관 상황을 보면 1922년 11월 개관 당시 23,000권의 장서를 비치했던 데 비해 40,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는 등 도서관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다.⁴⁶⁾

그런데 “京城圖書館書籍買入, 화재의 결과 서적이 절종될가 하여”(동아일보, 1923. 9. 19)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다.

(28) 이번 동경에 불이 나서 일본 서적의 대부분이 거의 절종이 되었다 할 수 있는데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 현재 조선이나 기타 각지에 남아 있는 책이 다 팔리면 장래 서적에 공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최근 또 이천여원어치의 도서를 사서 비치하였다. 차차 가을 바람이 부니 일반의 독서열도 부쩍 늘어 근일에는 매일 입장하는 사람이 이백여명 씩 되어 날마다 만원이 되고

“京城圖書館書籍買入, 화재의 결과 서적이 절종될가 하여”(동아일보, 1923. 9. 19, 3면)

44) “일반학생들의 독서하는 경향”(조선일보1938. 10. 31)을 보면 실제로 입학시험 볼 때부터 취직과 관련된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일본인에 비해 취업난에 허덕이기에 조선 학생들은 독서의 여지도 없고 책도 사 볼 여지가 없어서 주로 학교나 도서관에 있는 책에만 주로 의존한다고 밝혀져 있다.

45) “京城圖書館書籍買入, 화재의 결과 서적이 절종될가 하여,” 동아일보, 1923. 9. 19, 3면.

46) “京城圖書館府營問題 아직은 알수없서,” 동아일보, 1924. 10. 10, 2면.



〈그림 8〉 경성도서관 열람실(조선일보, 1925. 10. 30, 2면)

〈그림 9〉 재개관 이후 경성도서관 입장을 기다리는 다수의 학생들(조선일보, 1926. 3. 18, 2면)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경성도서관이 의욕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후에 이러한 도서관의 관리 비용들이 빚으로 축적된 데다 도서관 규모가 커짐으로서 유지비도 곤란하여 폐관 위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25년도 중반기 독서경향은 “最近 京城圖書館의 讀書傾向. 法律과 政治社會의 열람이 증가”(조선일보, 1925. 10. 30, 석간 2면)라는 기사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재정난으로 폐관하였다가 다시 재개관할 즈음에 해당된다. 이를 보면 전대와 독서경향이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29) 독서계절을 당하여 일반 독서 상황이 어떠한가 보니 시월 일일부터 이십 칠일까지 이십 사일간 조선인 측 유일의 도서관인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 독서 개황은 열람 인원 오천사백팔십육인으로 일일 평균 이백이십이인인데 그 중 남자 사천칠백육십팔인, 여자 육인, 어린이 칠백이인이며 열람책 순을 보면 법률 정치 경제 사회가 이천이백팔십으로 최고이며, 수리 역사 전기 지리 등이 제 이위를 점령하고 공학(工學) 서적을 보는 사람이 제일 적다 한다. 그리고 최근의 독서 경향에 대하여 경성도서관장 이범승 씨는 말하되 『여자의 독서열은 아직도 미약하고 수학 지력(地歷)등 참고서가 제 일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쁜 현상은 일반의 독서가 진실미(眞實味)를 띄어가는 것입니다』 하더라 “京城圖書館에서 본 最近의 讀書傾向”(조선일보, 1925. 10. 30, 석간 2면)

1925년 10월 한달 간의 독서경향을 정리해 보면, 전체 독서자 수는 약 5,486명의 열람자가 다녀갔고, 성별로 보면 대부분 남자이며 여자는 6명에 불과하여 여전히 저조하다. 또 연령대를 보면 어린이가 702인을 차지하여 증가세를 보인다. 분야별로는 법률, 사회 서적 등을 제일 많이 보고 공학 서적을 보는 이가 제일 적다. 초기의 독서 분야에서 문학이 최다였다면 그 읽기 대상이 법률, 사회 분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전 시기와 다르다.

그런데 (29)에서 이범승이 지적한 당시의 여성 독서계의 부진 현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만하다. 앞선 독서경향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지만, 20년대 여성 독서계는 저조한 형편이었다.

(30) 우리 조선 여자들은 아직도 독서열이 부족하다 서양이나 일본 여자들과 비교하면 전혀 독서를 안 한다(.....) 그들은 기차나 전차에 오르면 교실에 들어온 학생들과 같이 의례히 책을 펴 드는 것이 한 습관같이 보인다. 조선 여자들은 소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치루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교과서를 외우는 그런 독서 외에 별로 글 읽는 여자를 보지 못하겠다. 혹 중학교 졸업 정도의 신여성들 중에 독서하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 반수는 소설이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잡지에 지나지 못할 뿐이요 적어도 계통적으로 전문적 연구를 하는 여자들은 불과 몇 명이 못 되리라고 생각한다

“매우 개탄할 조선여자 독서열”(조선일보, 1925. 1. 22, 석간 2면)

조선 여성 독서계의 부진 현상은 근대 계몽기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개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특별히 잘 사는 부호의 부녀가 아닌 이상 일반 가정 부녀는 책 읽을 틈조차 낼 수 없었던 당대⁴⁷⁾ 상황을 헤아려 보면, 1920년대 초의 여성 독서층은 극소수의 신여성, 여자 유학생을 의미했고 당연히 여성 독서자 수가 소수일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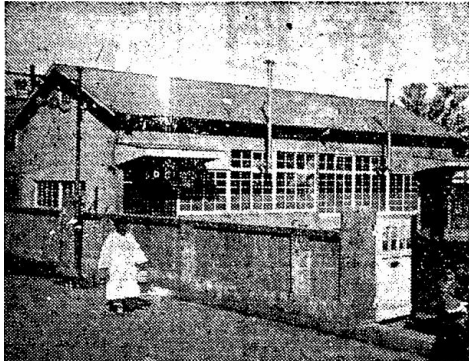
한편 경성도서관이 조선인의 손에서 경성부 소관으로 옮겨져 종로 분관으로 분리되던 시기에 이 도서관의 독서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31) 지난 사월 중 경성부도서관 종로분관(圖書館鐘路分館) 도서 열람인 수를 보면 총수가 삼천사백구십칠명으로 그 중에 일본사람 육십명을 제하면 삼천사백칠십칠명인데 다시 남녀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삼천삼백이십이이오 여자는 구십구인이다. 열람한 서적별로 보면 문학어학(文學語學) 등이 제일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다수 열람자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많이 읽기 때문이다. 학생 중에서도 문학을 탐독하는 층은 대개 중학생들이고, 과학서류는 전문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읽는 현상으로 전년 동월에 비교하여 이십사 퍼센트가 감소한 것은 난로(煖爐)설비가 부족하여 추운 것이 원인이라 하며 각 서적별 열람 상황은 아래와 같다 ▲ 통계 104 ▲ 철학 종교 208 ▲ 교육 62 ▲ 문학 어학 1,065 ▲ 전기(轉記) 역사 등 235 ▲ 정치 경제 361 ▲ 상업 문통(文通) 94 ▲ 수학 이학(理學) 등 585 ▲ 공학 병사(兵事) 84 ▲ 미술 음악 41

“文學 語學이 首位 女子는 男子의 卅三分의 一 난로 설비 부족으로 줄어 鐘路圖書館 讀書閱覽統計”(동아일보, 1927. 5. 10, 3면)

1927년도 5월에 해당되는 이 시기, 도서 열람자 수를 보면 총수가 3,497명으로 그 중에 일본인

47) 천정환(2003 : 339-340) 참조.



〈그림 10〉 증축된 도서관(동아일보, 1938, 2, 2, 3면)

60명을 제외하면 조선인이 3,471명이나 되어 대부분의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도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성도서관이 전신이었던지라 조선인이 우세한 현상을 보인다.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는 3,322명, 여자 99명으로 전대에 비하여 여성 독서자 수가 증가한 편이나 여전히 남자에 비하면 열세이다. 서적별로 보면 문학, 여학 등이 많이 읽혀, 독서 내용면에서 보면 소위 “이야기冊 독서”라는 독서 발전의 초보적 단계⁴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⁴⁹⁾ 이후 1930년대에 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은 경성부에서 열람실을 확장하였고, 도서출납원 2명 증원되면서 북촌 일대 조선인 독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⁵⁰⁾

(32) 시내 부립도서관 종로 분관(鍾路圖書館)에서는 그 장소가 협소하여 확장을 계획하던 중 이번 에 새로 약 오십평의 신관을 증축하고 신문실(新聞室)과 아동열람실(兒童閱覽室)로써 사용하게 되었는데 신문실 수용력은 약 오십명 아동실 수용력은 약 육십명이라 하며 종래의 신문 아동실이던 구관은 일반 성인 열람실로 확장하였으며 종래의 성인 열람실은 특별실(特別室)로 만들어 특별히 연구를 위한 독서자의 연구실로써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실의 수용력은 약 이십명 가량이라 한다. 이같이 새롭게 단장한 동도서관은 금 이월 일일부터 개관하게 되었다

“鍾路圖書館擴張 特別室을 두어 研究者에 提供 今日부터 開館”(동아일보, 1938. 2. 2, 3면)

(32)의 내용을 보면 30년대 말 당시 종로 분관은 비록 조선인인 경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다 정립된 형태로서 여전히 북촌 지대의 도서관으로서 조선인의 독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성도서관의 독서운동의 실태를 주로 독서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성도서관은 조선인이 주로 거주하는 북촌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열람자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도서관의 직업별 열람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열람자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공부할

48) “20년간의 독서 경향.” 조선일보, 1968. 8. 15, 석간 2면.

49) 논의와 별개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도서관에서 가을이 되면 정기적으로 일주일 정도 책을 말리기 위해 임시 휴관을 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기사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종로도서관 8일간 휴관.” 중위일보, 1927. 8. 31), 종로도서관(鍾路圖書館)은 구월일일부터 팔일까지 도서를 말리기 위하여 휴관하기로 하였다.” “경성 부립도서관종로분관은 폭서(曝書)하기 위하여 구월십칠일부터 구월이십사일까지 팔일간 임시휴업하기로 되었다” (“鍾路圖書館 八月間 休業.” 동아일보, 1930. 9. 5, 3).

50) “종로도서관 확장. 북촌독서자들에 희소식.” 조선일보, 1937. 3. 10, 조간 3면.

개인 공간을 갖기 힘들었던 당대 상황에서 도서관이 바로 공부방이 되는 도서관의 열람실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생의 경우 근대 초기부터 도서관을 찾는 열람자가 책을 열람하기 위한 목적보다 공부하기 위한 공간으로 방문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케 했다. 또한 여성 독서자 수가 남성 독서자 수에 비하여 훨씬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교육이 남성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이었던 당대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서 분야는 시기별로 대표적인 경향을 살폈는데, 23년도 개관 초기 독서 분야에서는 문학, 사상서, 어학 등이 최다였고, 25년 중반기에는 그 읽기 대상이 법률, 사회 분야로 변화되고 있어 전 시기와 차이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종로분관 시절인 27년도에는 다시금 문학, 어학 위주의 독서경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역사적 교훈

지금까지 민족적 관점에서 경성도서관의 건립 의의를 살펴보고,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방향과 독서운동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주시했는데, 첫째, 조선인이 경영한 유일의 도서관이었다는 점, 둘째,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역할했다는 점, 셋째, 독서경향을 통해 본 독서운동의 실태 등이었다.

조선인 경영의 유일한 경성도서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성도서관은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시립종로도서관' 전신이기도 하다. 1920년 경성도서관으로 개관한 후, 1921년 이범승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대여받은 종로 2가의 구한국군악대건물을 본관으로, 최윤정 경성도서관을 분관으로 재정립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서관이 정립된 것이다. 경성도서관은 당시 조선인이 경영했던 유일의 도서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지닌 도서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은 건립 초기부터 국내외 조선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도서관의 경영에 장서 구비부터 유지까지 국민의 기부가 잦았고, 이의 유지를 위한 저널과 관민의 힘도 적지 않았다. 단지 일개 도서관에 불과했지만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의 도서관이었고 민족의 지식의 보고이자, 민족 사업이기도 했기에 식민지하 조선인에게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경성도서관의 활동상을 보면, 경성도서관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었을 뿐 아니라 아동도서관을 마련하고 동화회 등 각종 문화 사업을 통하여 아동교육에 진력하였으며, 또한 이곳은 학교에 가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 대신 교육을 담당하였고, 조선여자청년회를 통해 새 교육을 받지 못한 구가정의 부녀자들을 모아 신여성 교육을 펴기도 하는 등 처음으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던 곳이다. 즉 경성도서관은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경성도서관의 열람 경향은 직업별·성별, 서적별 통계가 정기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히 통계치를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독서운동의 방향성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독서경향을 살펴 보면 경성도서관은 조선인이 주로 거주하는 북촌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열람자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도서관의 직업별 열람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열람자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공부할 개인 공간을 갖기 힘들었던 당대 상황에서 도서관이 바로 공부방이 되는 도서관의 열람실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 독서자 수가 남성 독서자 수에 비하여 훨씬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여성 독서를 촉구하는 소리도 높았다. 이는 여성교육이 남성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이었던 당대 사회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서 내용면에서는 문학 여학 등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비록 경성도서관이라는 일개 도서관의 독서경향이지만 이것은 당시 조선 독서계의 독서경향을 일부 대변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대 조선인 일반의 독서경향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⁵¹⁾

본론에서 이미 고찰한 바, 경성도서관은 이같이 여러 가지 새싹이 튼 곳이나 이범승 일개인이 유지하기엔 너무나 벅차 26년 개관 7년 만에 당시 경성부로 소관이 옮겨졌고 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이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시립종로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다시 우리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33) 해방 이후 문을 닫았던 서울 시청 도서관 제이 분관을 서울시 종로(鐘路) 도서관으로 개칭하고 이십육일부터 개관하게 되어 동일 오후 두시 개관식을 거행한다 그런데 서울시립제일도서관은 서울시립 남대문(南大門) 도서관으로 개칭을 하였으나 동건물을 현재 중구(中區) 청사로 쓰고 있어 당분간 개관을 하지 못한다

“鐘路圖書館開館”(동아일보, 1945. 12. 25, 3면)



〈그림 11〉 새벽부터 불비는 종로도서관(중앙일보, 1967. 7. 17, 3면)

종로도서관은 사변 이후 잠시 폐관하였다가 1953년 8월 수리공사로 개관하였다. 이후 사직동에 자리잡고 규모가 확장되었으며 오락실 등 부대시설까지 갖춘 도서관으로 증축되었다.⁵²⁾ 1967년 7월에는 개관 반세 기만에 문을 닫게 되는데, 서울시 당국 주관의 '파고다' 공원 아케이드 건설과 도로 확장공사가 그 이유였다. 종로도서관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을 찾아 공부하던 학생들은 “철거 전에 이전 계획을 세우라.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라도 되도록 그 날짜를 미뤄 책을

51)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pp.129-167 참조.

52) “종로도서관 어제 기공식,” 조선일보, 1967. 8. 11, 조간 4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연판장을 만들어 국무총리·문교부·서울시·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당시 종로도서관의 열람석은 300석이었고 하루 약 500명이 드나들었다.⁵³⁾ 폐관 후 1년 후인 1968년에 지금의 위치에 535명의 수용 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재개되었고,⁵⁴⁾ 증축과 재개관을 거듭한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경성도서관은 192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을 색깔을 달리하며 이어져 온 것이다.

참 고 문 헌

〈朝鮮日報〉(1920~1970).

〈東亞日報〉(1920~1970).

〈朝鮮中央日報〉(1920~1930).

〈신한민보〉(1920~1930).

〈시대일보〉(1920~1930).

〈中央日報〉(1960~1990).

박영민. “독서 교육의 성격과 유형.”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제31집(2005), pp.53-74.

박영순.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집(1997). pp.112-132.

신헌재 외. 독서 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 서광학술자료사. 1993.

손영애.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문화사. 2002.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pp.129-167.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7집(2006), pp.333-380.

윤금선. “日帝強占期 學生 讀書運動 研究.” 語文研究(韓國語文教育研究學會), 제133호(2007), pp.389-413.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1)~(2).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이경화.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의 방안.”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제32집(2005), pp.75-97.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 2002.

조은숙. “동화회(童話會)” 연구 - 공동체적 독서에서 독서의 공동체로.” 민족문화연구(고려대학교

53) “종로 도서관 반세기의 종장 끝내 문닫는 「한국최초」,” 중앙일보, 1967. 7. 17, 3면.

54) “社稷公園에 새 鍾路圖書館 기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현대사 연표, 1967. 8. 10, “서울市立 鍾路도서관 開館, 수용 人員 535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현대사 연표, 1968. 8. 20.

민족문화연구원), 제45권(2006), pp.226-227.

최정환. 근대의 책읽기. 서울 : 푸른역사, 2003.

허재영. “국어과 교육과정과 독서교육론의 전개 - 학문적 정체성 확립 과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제16집(2005), pp.265-301.

한철우. “독서교육 연구 및 지도방안 탐색 : 독해과정 연구와 독서 교육: 1970년대 이전.” 한국국어 교육연구회논문집(한국어교육학회) 33(1988), pp.18-37.

<본문 인용 기사 원문>

인용문 1. “三十萬市民을 爲하여 가난한 령혼에 량식을 주고자”(동아일보, 1921. 12. 6, 2면)

삼십만시민을 가지고있는 경성(京城)에는 모든 것이 발달하여야하는데따라서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며 또 일반시민사이에는 각방면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이 이러나는데 무엇보다도 교육과문화를 즉점으로 도읍은것은 시민의지식을넓히는것이우리의경성시민으로는 가장간절히바라는바이나 삼십만명이 거주하는도회로서 교육을식히는 학교의기관은아직까지도 넘어완전치못하여 해마다향학렬이 굉장하여디방의학생들이 서적을끼고 경성으로올라오나 수용할학교가 부족하여 대부분은 할수업시 그대로도라가는 비참한운명에 있는것은 참으로가이업는일이오 또절박한사정이라 경성에 이와가치 학교가 부족하거든 그대신에사회덕지식이라도 연구할 곳이나 잇스면 얼마이라도 보조가될터인데 경성에는 한곳의완전한도서관(圖書館)도업서서학성이나 기타 전문지식을 연구하는사람들은 다시서적을 참고할곳이업슴으로 비상한곤난을 이루는터인데

인용문 2. “京城圖書館 新聞雜誌等 縱覽開始”(조선일보, 1920.12.18, 석간 3면)

임의기제헌바와갓치 경성도서관은 우금까지각종의도서를정리중임으로 일반도서를공중종람에 데공치못하였더니 작일부터 신문,잡지등의종람을 기시하얏는디 작일까지경성도서관에 도착한외국신문아사+여종인디 종람하는사람이담지하야 량호호성적을얻는중이라더라

인용문 3. “三十萬市民을 爲하여 가난한 령혼에 량식을 주고자”(동아일보, 1921. 12. 6, 2면)

경도(京都)에서 데국대학(帝國大學)을졸업하고도라온 리범승(李範昇)씨가 전력을다하여도서관설립운동을운동하는바사업이착착진행되야 구월십일부터 답골공원뒤에있는전양악대(洋樂隊)가잇든집을비러서 위선 준비되기전에 신문잡지종납소를 먼저공개하야 사십여종의각처신문과 일백오종의 잡지를갖추어 매일수백여명의 관람자가 뒤들이어 드러오며 구월십일부터문을연이리로일자가오히려얼마되지아니하얏는데 종람자의 총수호가 구천명에 달하야 매우성황을 이루엇는바 본관서책실의준비도 거의다되야 느껴도오는십오일경에는 모든설비를맞치고 정식으로개관하야 일반에게 종람케할터이라하며 금년봄에 비로소조선사람손으로 설립한 취운당(翠雲亭) 안에 있는 도서관도 역시 리범승씨가 인계하야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 분실(分室)로 사용하야 한문서적(漢文書籍)을 전문으로 장치하고 본관에는 전부신간서적으로만 지금 준비하야 잇는것이 오천여권이오 계속하야 신간서적을 사드릴계획이라는데

인용문 4. “三十萬市民을 爲하여 가난한 령혼에 糧식을 주고자”(동아일보, 1921. 12. 6, 2면)

도서관의내부도 최신식으로설비하여 지금 카트,를 분명히정리하는중이며 관람료금은 물론공익을 주장으로 하는사업인까닭에 입장료금은 지극히저렴해야 한사람에게 한달표는 사사십전으로당하고 개관시간은 당분간 오후다섯시까지로한다는데 이에대하여 리범승씨는말하되 지금은 실시한처음시오 모든설비가 아직정돈이못 되었스나 명년부터는 야간에도 개관을할터시오 도서관의주최로 장리에는시민강좌(市民講座)가튼것도 실시 하여 전문의학상술강연도 순회문고(巡廻文庫)가튼제도도 실시할터이라 말하는데 여하간경성에 이와가튼안 전한 도서관이 설립된것은 삼십만시민의 큰행복이라하겠더라

인용문 5. “경성도서관 확장”(신한민보, 1921. 12. 22, 3면)

경성도서관은한국안에 오직 하나되난 도서관인데(.....) 구미 각국은 말할것도업거니와 일본에도큰도시에만 반다시 도서관이 잇서 인민의 디식을 내려지지만은 오직우리도선에너에만 경성도서관이 처음으로한아 싱기 었으니 우리 一만동포가 다귀하여기억이고할수잇으면후원하야우리나라에도남의나라와갓치 도흔 도서관이 잇게하난것도호터인디 지미동포등 유지한이가 흑시책을 사서 기부하난이가잇으면 감사하겠고또한고미동 포등에 본국서적이나 흑 외국책을 물론하고 또한 시것이나날근것을가릴것업시 무슨서적이던지 사서보다가 버리게 되난것이 잇거던 그저박으로버리지말고 다만 우표를 붙쳐 경성 취운당 도선경성도서관으로 보내여주 면 경성도서관에서난 무론 환영하고 감사히 녀일지오 우리도선인의 도서관도 짜라서 남의나라 도서관과 갓 치 확장될터이니이에대하여 교미 동포들이 주의하여주시면 도켓소이다

인용문 6. “科學의 中心地인 獨逸에서 書籍의 精粹가 京城圖書館에”(동아일보, 1923. 8. 27, 3면)

조선 사람 경영으로 오죽하나인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 새로이 깃분소식을전한다 독일가서잇는 우리조선류학생 룽칠인은고국청연의 수양과공부를 위하여 독일서적중에(.....) 일천이백여원어치의 서적을 사서 보내기가 여간한 성력이아니라(.....) 보내준 책은 전부 삼백여권으로(.....) 독일 서적의 정수가 거의 다 들어 잇습니다. 이외에 미국 <칼리포니아>, <싼유바> 한인교회에서는 영문(英文)으로된 세계대전사(世界大戰史)를 기부하였고 로스앤젤레스 어떤 교회의 리목사(李牧師)는 영문으로 청년과 소년 소녀의 수양에 쓰는 서적 여달권을 기부하였습시다

인용문 8. “新裝의 산뜻한 京城圖書館”(아일보, 1923. 7. 29, 3면)

민병회씨의 일반원을 비롯하여 관민의 기부금으로 신관 건축을 하게되었다. 신관은 건평 일백삼십여평으로 아래층 오른쪽에 백여종의 신문잡지를 갖추어 놓은 신문실, 왼쪽에는 열람실 90여명을 유치할 수 있음. 칠천 이백의 신간서, 이천삼백의 고서적을 진열 구관은 아동실로 고치고 90여명의 아동을 유치할 수 있는 열람실, 휴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

인용문 9. “京城圖書館近況”(동아일보, 1924. 1. 27, 2면)

시내인사동(人寺洞)에잇는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조선사람이경영하는 유일한 도서관으로작년팔월개관 이래 매일만원의 성황을이루어 근일에는 매일열람자가삼백여명씩이나되고도 열람실이부족하여 열람사절되는 인원이이백여명씩됨으로결국하로에오백여명씩이나되니경성내다른 도서관에비히야성적이우량하고일개월 평균독자는팔천명이상구천명이 될때가만호며열람하는책이한달에 일만사천여권이라하며그도서관에 부속된 아동도서관(兒童圖書館)에도매일 백여명의 열람자가잇고 그도서관에둔 조선녀자 청년회가주장하는 부인강

좌도 더욱충실한발달을하여야하는중이니원래그도서관은 그주인리범승(李範昇)씨가자기의사재를 기우리어하든터이라 근일에는 리씨의재산은거의 소모되고 경영은날로곤란하여가는데몇칠전에는고동민영휘(閔泳徽)씨는아래에쓰인권장문(勸獎文)과함께도서구입할 비용으로 이천원을기증하였으므로 도서관원 일동은 김희씨의 후의를 감사하는 동시에 넓히 사회유지의 동정을바란다더라

인용문 10. “京城圖書館困境, 부호여 회사하라”(동아일보, 1924. 4. 1, 2면)

◇ 시내 인사동에잇는 경성도서관에서는 매년일만오천원의경비가업서서 근월부터 폐관하리라는비참한운명에 빠지었다한다. ◇ 대학이잇고 연구소가잇고 독서를하려면 자유로사볼 돈이잇는 다른나라에도 중요한도시에는 시민에게도서관을공급하는 도서관이 몇개식잇는데 삼십만시민이사는 경성에서 아일개도서관을 유지하지못한다함은 얼마나비참한일이나(.....) ◇ 우리는지금불에타는동포의구할길을 연구하는청년에게 연구제료를 주는도서관이 역시불속에 드러가는 것을보고 더욱 비통을늦긴다 ◇조선인이 아모리 빈약하여도이것하나야 불속에넛코말랴! 부호의분기를바란다

인용문 11. “京城圖書館廢止에 對하야(自由鍾)”(동아일보, 1924. 10. 6. 3면)

◇ 世界의思潮는나날이우리로하야금夢殼을打破하도록 補□을不己한다 이는곳新知識의波動이니 果然知識은偉力이오權威다世界大戰에너머나 뒤진우리로서는 엇지一刻일지라도 虛送浪游할수잇스랴 어서어서빨이배우고 研究하여야될것이다 ◇朝鮮人의經營으로京城青年男女의唯一한讀書機關이든 京城圖書館이 이제經濟困難으로 維持하야갈수업서 廢關이되었다한다 아-슬푸다엇지이다지도우리生活은 모조리쓸쓸하고悲慘한것뿐인가 우리事業이란무엇하나가 完全히리오이한個의圖書館의運命까지 維持를못하고 破滅을 不□하니이것이우리의生活을表徵하는것이아니고무엇인가.. - 부호여, 지사여 도서관을 살리기를 바란다.

인용문 12. “눈물로 영킨 1백원의 의연금”(조선일보, 1924. 11. 24, 조간 2면)

자기재산이 천원어치 밧게안되는데 상봉하술하고 일곱식구가 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변치안이나마 의연에는제힘에 부치게 하기를한두번이 엇나이다 조고마한상점을경영하야 겨우지내는 중백만대중이 굴머죽게된다는 말을듯고 제쳐디로는 상점에 팔린물건 귀을 잇는대로터러 마산(馬山)근구제회에보냈사온데 그런지 이틀만에또이런소식을드르니자연눈물이암을가리나이다(.....) 될수잇스면 자기재산을바치고십호나 그럴수는 업사오니재단법인이 되기까지 녁백원을 량기에난호아바치겠나이다 선생님만난을배제하고라도굿세게나가 면뜻잇는사람이반듯이 이루울것ियो 죽음속에서살기를 도모할것이외다 제의 짜른듯이 엇지가슴에가득한 만 단회포를 다쓰겠나이가

인용문 13. “京城圖書館府營決定 府立은 大觀亭에 移轉”(동아일보, 1926. 2. 23, 5면)

인사동에잇는경성도서관은기보한바와가치약사만원의가액으로경성부가사서경영하게되었는데그경비로는지금 명치명(明治町)에잇는부립도서관을장곡천정(長谷川町)대관당(大關亭)으로이사하는데 대관당은 그간□관소관이든것을삼정합명회사(三井合名會社)가대점십이년에십이만륙천원으로매수하였으나 지금현가로는 이십만원어치나됨으로 경성부운은 삼정경성시던당과 루차교섭한결과 삼정측에서 경성부의사회사업에 찬동하는뜻으로 원가대로 팔기로보여지난이십일에완전히교섭이다되었다는데 그면적은 약삼천평으로길가에잇는 삼백오십평은부민에게팔고그남어지는 도서관을건축하리라더라

인용문 14. “민족적 감정의 이유. 결의문 산포 금지”(조선일보 1926. 3. 2, 석간 2면)

문데만튼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 필경 그관주리범승(李範昇)씨가 경영하기 어렵게 되야 경성부(京城府)에서 경영하게 되었다 함은 루루히보도 한바어니와 이제 그와가튼 비보를 접한 시내 관털동에 있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지난달 이십칠일에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도서관문대를 토의하게 되었었는데 과학을 연구함에는 데일 중요한 것이 도서관인바 그만것을 우리 손으로 경영하다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일뿐 아니라 위치 변경설까지 전하는바 만일 그와가티 되면 과학연구회뿐 아니라 일반우리독서가의 큰 손실인바 그대로 잇슬수 없는 문데이라하여 一, 三月二日에演說會를開催하여크게輿論을喚起하자 二, 「세라」를全市市에散布하여크게市民의覺醒을喚起하자 三, 社會有志를訪問하여크게同情을喚起하자 는 등의 결의

인용문 15. “朝鮮女子青年會는 京城圖書館에 移轉, 계속하든 강습소 이외에도 부인강좌를 새로 실시한다”(동아일보, 1923. 10. 1, 3면)

조선여자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는 작년봄부터 조직된 후로 회당신알베트(申謫珮○)녀사와기타의 열심으로 진력하는 직원들이 물질의 곤란을 당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데 월전부터 관수동(觀水洞)에 일시 거점하는 처소를 쓰내놓게 되어 우선 거점할 회관이 없는 형편이던바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리범승(李範昇)씨는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아동실(兒童室)의 한 방을 빌려 주어 동청년회의 사무실로 쓰게 하는 동시에 종래에 그 청년회에서 가라치는 교육부(教育部) 학생들도 오후부터 아동실에서 학과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인용문 16. “부인 강좌. 금야 경성도서관에서”(조선일보, 1923. 10. 27, 석간 3면)

조선여자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에서 부인강좌(夫人講座)를 토요일마다 개최한다 함은 여러번 보도한 바어니와 금일에도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안에서 오후 일곱시 반부터 의사(醫師) 김용치(金溶埰)씨를 정하여 지부쓰(장감)에 관한 연례로써 아모리 상식이 업는 부녀라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터이며 그 다음에도 유지제시의 유의한 강연이 잇슬 터이라 한즉 일반부녀는 로소를 물론하고 이러한 유익한 강연을 만히와서 들어 주기를 바란다더라

인용문 17. “경성도서관內的 조선여자청년회에서 금일 부인강좌를 열고”(조선일보, 1923. 12. 15, 석간 3면)

시내인사동「경성도서관 안에 있는 조선여자청년회에서는 금일 오후 일곱시〈부인강좌〉를 열고〈오두환〉씨가〈사회사업과 가정의 책임〉이라는 문제로 강연한다는데 오늘밤에는 특별히 동경대 진재의 활동사진을 영사할 터이라더라

인용문 18. “말동무, 가르쳐 주시오”(시대일보, 1924. 12. 7, 2면)

네! 짜가는 족습니다. 그러나 열성을 가지시고 공부만하신다면 가르쳐 들일 곳이 잇겠지요 지금 서울에는 당신네가티 짜를 일흔 여자를 위하여 강습소도 몇 곳 잇고 또 하탑골 공원에 잇는 경성도서관 안에 여자청년회에서 야학으로가 정부인과 학년년령에 지낸 여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보통과도 잇고 중등과도 잇스니 자세히 문의하여보시오

인용문 19. “日 曠童話會. 現代少年俱樂部主催로 去九日 京城圖書館에서”(조선일보, 1925. 8. 10, 조간 2면)

현대소년구락부(現代少年俱樂部)에서는 구일오전 여덟시 반부터 시내인사동(仁寺洞)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 일요동화회(日曠童話會)를 개최할 터이라는데 입장은 소년소녀에게 한한다 하며 연사는 다음과 같다고 李伯均外三人

인용문 20. “京城圖書館의 童話會, 보통학교아동에 한하여 입장”(동아일보, 1923. 11. 18, 3면)

탐골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 어린이들의 품성도야를 도습기위하여 금십팔일 하오칠시부터 동도서 관아동실에서 동화회(童話會)를 개최 한다는데 이날은 방정환(方定煥)씨의 재미있는 이약이가 잇슬터이라 하며입장은 보통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한다더라

인용문 21. “현대소년구락부 레코드대회 27일 오후에 경성도서관에서”(조선일보, 1925. 12. 27, 석간 2면)

시내종로이동목에잇는 현대소년구락부(現代少年俱樂部)에서는 오는이십칠일 오후여섯시반부터 『레코-드』 대회를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아동실에서개최한다는데 입장은 소년소녀에한하되 장내를 정리키위하야입장 료오전식을맞는다하며 『레코-드』연주이외에 소년소녀의재미잇는합창과무도가잇스리라더라

인용문 22. “兩處에 圖書館, 아해를 위하여 京城圖書館과 明治町에”(동아일보, 1922. 3. 17, 3면)

경성부(京城府)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경비를 마련하야 사회사업으로 간단한 도서관(圖書館)을설시할터이라함은 임의 보도한바이어니와 경성의시가는 남면으로는 일본인이만히살고 북면으로는 조선사람이 만히잇서 도서관을설시하는데에도 이이상으로든지 도서를 열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짜라서 조선인 편의 도서관은 방금 리범승(李範昇)씨가 경영하는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안에 특별히 아동도서관(兒童圖書館)을 설치케 하야 조선 아해들의 교외교육(校外教育)의 찬조가 되게하고

인용문 23. “臨迫한 試驗期와 學生의 讀書激增, 경성도서관에 나타난 근일 독서계”(동아일보, 1923. 12. 10, 3면)

이학기시험! 학생들의 머리를압흐게하고 가슴을답답하게하는각학교의 이학기시험도 인제몇칠이 남지아니하 았다 그리하야보고십흐나 보기실흐나 시험은보야야하겠고 잘되나 못되나 준비는하야야한다는 생각에 줄리는 최근의 학생계는 무던하게긴장되얏스니(...) 책사에드나드는학생의수효는 자세한통계가업슴으로 분명히알수 업스나 락원동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 밀리는 사람만하야도 재작일부터는 밧작 늘어가기시작하야 저널 먹기가 무섭게일곱시도못되여 임의 덩원이넘어 신문잡지실에까지 자리가업게되얏는데 『글』을 탐하야 모아 드는 이모든사람은 거의전부가 희망이넘치는얼골에도 불안한걱정의빛을띄인 학생들이다 지날일부터 오일짜 지의 통계만하야도 총열람인원 일백륙십이명은 순전한학생이라는데(...) 이학기시험을목전에바라보는 학생 들은 시험준비에 애를쓰는까닭이라 한다

인용문 24. “京城圖書館 한동안 폐관후 今日 다시 開館, 학생에게 한해”(동아일보, 1925. 2. 1, 2면)

한동안 폐관중이던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다시서광을보아근근개관될터이라 함은임으로보도한바이 어니와 학생들의독서열이 나날이더하야가는 이재일뿐만아니라 각학교의 입학시험준비시기에 잇는이때에 그 학생들에게 하로라도 속히편리를도모하야주기 위하야위선 학생들의관람에 한하야금일부터 개관하게되엿다하 며 경성부에서도 이도서관에대하야 호의를가지고잇는 중임으로 불일간에원만한 유지책이당하야질것이라하 며 짜라서 일반관람자도 미구에관람하게될터이라더라

인용문 25. “最近 京城圖書館의 讀書傾向. 法律과 政治社會의 열람이 증가”(조선일보, 1923. 12. 25 석간 3면)

경성도서관의독서성적을들을것가트면데일만만키는학생이오 그다음에는보통학교에단이는듯한어린이가매월

평균 일천사백여명에 달한다하며 그 외에 사회청년으로는소설과연극각본을데일만히읽고 그다음에는문학과 사상방면에대한 서적을보는이가만타하며 그 외에는외국어학의독서열이전년보다는매우량호하다는데 요전에 독일에서 삼백여권이도착하였는데 의학생과 중국혹은일본류학생이 들어오면대개그책을매우 재미있시읽어오는중에 있다하며 그중에도 의심되는것으로말하면남자는매월평균육천사백여명에달하나 여자로말하면달에 데일만흔것이이십사명이오 그답에는칠팔명에불과하는데그역시책을읽으러오느것도안이오도서관이라는것을 구경하려고오는이가 만흔듯함으로 부인서적을만들었다가이제는부인석에도남자가점령하게되었다하더라

인용문 26. “科學의 中心地인 獨逸에서 書籍의 精粹가 京城圖書館에”(동아일보, 1923. 8. 27, 3면)
書籍目錄〈맑스〉全集 칸트全集〈마이엘〉百科辭典 외대全集〈랏셀〉全集 獨逸語大辭典〈쇼펜하우옴〉全集 世界歷史 博物學字典〈아리스토텔레스〉全集〈인넬만〉全集〈피히엘〉全集〈울리스울〉全集〈라카〉氏著 世界歷史〈플라톤〉全集〈하움트만〉全集〈타교을〉전집 圖書館實鑑(佛敎)〈산달〉字典 世界圖書〈랑짜이 드〉字典

인용문 27. “圖書館과 書店에 表現되는朝鮮文化의 程度”(조선일보, 1923. 12. 25 석간 3면)
教育家가多數 府立圖書館成績 학생이데일이오 그다음은교육가 이에대하여 다시일본인 중심으로한 경성부립도서관의 성적을드르면 매월평균남자가이천명 여자가백여명이라는바 그중에는 학생도만키니와 사회층으로 교육가만히들어온다는데 그들의보는책은〈리학〉〈수학〉〈의학〉〈정치학〉〈경제학〉이데일만타하며 녀자들은 모다〈미술〉〈음악〉에대한것이다수하다는바 부립도서관에는 학생보다도오히려 사회층에서 오는이가매우다수하다더라

인용문 28. “京城圖書館書籍買入, 화재의 결과 서적이 絶종될가 하여”(동아일보, 1923. 9. 19, 3면)
금번동경에 불이난재문에 일본서적의대부분도 일시는 거의 絶종이 되었다할수잇는데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 현재 조선이나 기타각지에 남아잇는 책이 다팔리면 장래서적에공황이이러날것을 염려하고 근일또이천여원어치의도서를사서비치하였다 차차가을바람이부닛가일반의독서열도부벽느러근일에는매일입장하는사람이이백여명식되어 날마다 만원이되고

인용문 29. “京城圖書館에서 본 最近의 讀書傾向”(조선일보, 1925. 10. 30, 석간 2면)
(29) 독서계절(讀書季節)을당하야일반의 독서상황이 엇더한가하고보니 십월일일부터 동이십칠일까지이십사일간조선인층유일의도서관인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독서개황은열람인원(閱覽人員) 오천사백팔십육인으로일일평균이백이십두인인데그중남자사천칠백륙십팔인녀자육인어린이칠백이인이며열람책수류별(閱覽冊數類別)로보면법률정치경제사회(法律政治經濟社會)이천이백팔십을최고로하야수리력사전기디리(數理歷史傳記地理)등이 제이위를점령하고공학(工學) 책을보는사람이데일적다한다 그리고최근의독서 경향(讀書傾向)에대하야 경성도서관장리범승(京城圖書館長李範昇)씨는말하되 『녀자의 독서열은아즉도미약하고수학지력(數學地歷)등참고서가차차제일위를점령하게됩니다 그리고더욱 김분현상은 일반의독서가 진실미(眞實味)를들씩워오는것입니다』하더라

인용문 30. “매우 개탄할 조선여자 독서열”(조선일보, 1925. 1. 22, 석간 2면)
우리 조선녀자들은 아즉도 독서의 열이 부족하다 서양이나 일본녀자들에게 비교하면 전연히독서를안한다

(.....)그들은 기차나던차에오르면 교실에 들어온학생들과가티의레히책을펴드는것이한습관가티 보인다 조선 여자들은 소학교나 중학교학생들이 시험을치루기 위하여 밤을새여가며 교과서를 외우는— 그런 독서외야 별로히글넌는 여자를보지못하겠다 혹 중학교 졸업정도의 신여자들중에 간혹독서하는자가 잇다하여도 그반수는 소설이 아니면 한달에한번씩 발행하는 잡지권에 지나지못할뿐이요적어도계통적으로전문덕연구를하는 여자들은 불과몇명이못되리라고생각한다.

인용문 31. “文學 語學이 首位 女子는 男子의 卅三分의一 난로설비부족으로 줄어 鍾路圖書館 讀書閱覽統計”(동아일보, 1927. 5. 10, 3면)

지난사월중경성부도서관종로분관(圖書館鐘路分館)도서열람인수를보면 총수가 삼천사백구십칠인으로서그중에일본사람육십명을제하면 삼천사백칠십칠십일명 인데다다시남녀별로 난호어보면 남자는삼천삼백이십이인이오녀자는구십구인이라는바 열람한서적별로보면 문학어학(文學語學)등이테일위를덤령한것은학생들이만히드러가는경향이잇는짜닭이라는데 학생중에는 문학을탐독하는것은 대개중학생 들의 계급이오고학서류는전문학교학생들이대부분잇는현상으로전년동월에비교하여야잇 『파센트』사팔이줄어진것은난로(煖爐)설비가부족한데다 치운것이원인이라하며 각서적별의상세는아래와갓더라 ▲ 統計—〇四 ▲ 哲學宗教二〇八 ▲ 教育 六二 ▲ 文學語學 一〇六五 ▲ 轉記歷史等▲ 二 三五 ▲ 政治經濟 三六一 ▲ 商業交通 九四 數學理學等 五八五 ▲ 工學兵事 八四 ▲ 美術音樂 四一

인용문 32. “鍾路圖書館擴張 特別室을 두어 研究者에 提供 今日부터 開館”(동아일보, 1938. 2. 2, 3면)
 시내부림도서관종로분관(鍾路 圖書館)에서는 그장소가 협착하여 확장을계획튼중 이번에 새로약五十坪의 신관을 증축하고 신문실(新聞室)과 아동 열람실(兒童閱覽室)로서 사용하게되었는데신문실 수용력은약五十명 아동실수용력은약六十명이라하며 종래의 신문아동실이든 구관은 일반성인열람실로써 확장하였스며 종래의성인열람실은 특별실(特別室)로 만들어 특별히연구할독서자의 연구실로써 제공하게되었는데 이특별실의 수용력은 약二十명가량라한다. 이같이 면목을 일신한동도서관은금二월一일부터 개관하게 되었다

인용문 33. “鍾路圖書館開館”(동아일보, 1945. 12. 25, 3면)

해방이후 문을닷엇든서울시청도서관제2분관을 서울시종로(鍾路) 도서관으로개칭하고 二十育六일부터개관하로되어 동일오후두시동과내서개관식을거행한다 그런데서울시립제일도서관은 서울시립남대문(南大門)도서관으로 개칭을하얏스나 동건물을현재중구(中區) 청사로쓰고잇서당분관개관을하지못한다

